

광주·전남 車 등록 2만 8000대 증가

작년말보다 각각 1.8%, 2.4%씩 늘어 관세인하 등 영향 SUV·수입차 강세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16만33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났다. 엔화 약세 및 자유 무역협정(FTA) 관세인하 효과에 따른 수입차 판매 증가도 두드러졌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기준 광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56만 903대로, 지난해 말 55만821대와 비교해 1만82대(1.8%)가 증가했다. 전남지역은 78만5407대로, 지난해 말(76만6704대)보다 1만8703대(2.4%)가 늘었다.

광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세종시

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체 가운데 제주(31만6441대), 울산(47만9305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인구비로 따져봐도 6대 광역시 가운데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2010년 광주 인구 기준(147만5745명)으로 보면 광주는 인구 1명당 0.38대를 소유해 부산(0.34대) 다음이다. 대구(0.41대), 인천(0.40대), 대전(0.40)대, 울산(0.44)대 보다 낮다. 전남은 인구 1명당 0.45대를 보유 중이다.

상반기 국산차 등록 대수는 71만 4904대로 지난해 동기보다 1.76% 줄

어늘었다.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0.02%, 35.96% 증가했으나 기아차 5.41%, 한국GM 4.49%, 르노삼성 13.86%씩 감소했다.

모델별로는 현대 그랜저가 지난해 동기보다 0.15% 줄었지만 여전히 5만368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대 싼타페와 투싼은 레저문화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인기비로 따져봐도 6대 광역시 가운데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2010년 광주 인구 기준(147만5745명)으로 보면 광주는 인구 1명당 0.38대를 소유해 부산(0.34대) 다음이다. 대구(0.41대), 인천(0.40대), 대전(0.40)대, 울산(0.44)대 보다 낮다. 전남은 인구 1명당 0.45대를 보유 중이다.

상반기 국산차 등록 대수는 71만 4904대로 지난해 동기보다 1.76% 줄

5시리즈로 9166대였다.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율은 14.75%였다. 토요타 캠리와 렉서스 ES시리즈를 제외하고는 차량 등록 대수 상위 10위 이내에 독일차 모델들이 올랐다.

자동차 이전등록 건은 0.12% 감소한 166만9000건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슷했다. 국산차에선 현대 소나타가 8만7057대로 1위를 차지했고 기아 모닝과 현대 아반떼가 같은 기간보다 각각 17.7%, 9.62% 늘어났다. 수입차 중에선 BMW 5시리즈가 이전 등록 대수로도 1위를 차지했고 벤츠 E클래스와 폴크스바겐 골프도 52.92%, 43.46%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00만대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무더위속 집 고쳐주기 구슬땀 한국전력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0일부터 닷새간 김동철 국회의원과 함께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치고, 광주지역 독거노인 및 결손가정을 방문해 전기설비와 도배 및 장판 등을 보수했다.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광주지역 '미건설' 이미진 대표 '여성경제인의날' 국토부 장관 표창

광주지역 중견 기업인 이미진(49·사진) '미건설' 대표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4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0일 여성기업 활성화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7회 여성경제인의 날' 행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대표는 여성기업의 불모지인 건설업계에서 짧은 기간 내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미건설은 경기불황 속에서도 지난 2년간 431%의 성장을 거듭했다. 지난 1997년 소규모 아파트 인테리어를 시작으로 사업에 입문한 그는 2008년 한 남품업체를 인수, 창업했으며 상생과 신용, 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을 일궈냈

다. 이 대표는 "창업 초기 여성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냉소와 편견 때문에 업계에서 활동하는데 제약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건설한 기업이 정신으로 성장하고 여성으로서의 세심한 배려와 감각적인 시공기술로 신뢰를 쌓은 것이 수상의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호고속 고객 쌍방향 소통 창구 제3기 '고객 행복 모니터스' 발대식

금호고속이 지난 12일 금호터미널(유·스퀘어)에서 '고객행복 모니터스 제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객행복 모니터스는 금호고속이 마련한 고객 쌍방향 소통 창구로, 고객이 버스나 터미널을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알릴 때마다 서비스 및 운영 시스템에 이를 적극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출범해 1년 단위로 활동하고 있으며 3기 모니터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활동하면서 월 2회 버스 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분기 1회 실시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버스나 터미널 이용 후기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정이다. 금호고속은 현재 전 임직원이 하루 60분씩 영업현장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현장60'과 전 직원이 월 1회 금호고속 버스를 타고 체험한 결과를 공유하는 '우리버스 타기' 등을 통해 고객 만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2013한국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고속버스 부문 종합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모니터스 제도를 통해 고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만큼, 고객행복경영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K3 中판매 10만대 돌파 출시 9개월만에...기아차 브랜드 중 최단기간

기아자동차의 준중형 세단 K3가 중국 누적판매 10만대를 돌파했다.

14일 기아차에 따르면 중국 합자법인인 톈풍얼달기아의 K3가 지난해 10월 중국시장에 선 보인 뒤 9개월(8개월 3주) 만인 지난주에 누적 판매 10만 대를 넘어섰다.

이는 2011년 7월 출시돼 누적판매 10만대까지 9개월 1주가 걸린 K2의 기록을 2주 앞당긴 것으로 기아차 브랜드중에서는 최단기간에 이뤄낸 성과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K3는 판매

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1만대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K2의 월간 판매 기록을 앞지르며 기아차 최대 판매 모델에 등극하기도 했다. K3의 성공은 '디자인 경영'에서 비롯된 세련된 디자인과 상품성 외에도 중국 최고 스포츠스타인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장지커(張繼科) 선수를 모델로 기용하는 등 신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활동에서 기인했다는게 기아차측의 분석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트코, 순천 신대지구 입점 재추진

입점을 놓고 전남 동부권 소상공인과 갈등을 불러왔던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Costco)가 지난 10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난 2월 경제청이 반려했던 설계도면을 수정, 순천 신대지구 부지 2만8000여㎡에 3층짜리 연면적 2만6000여㎡ 규모의 매장 입점을 계획으로, 설계 기본 도면과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동부권 시민사회단체 및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순천점 입점과 관련, 건축 인허가 서류를 자

진해서 회수했던 코스트코측이 철퇴 4개월 만에 서류를 다시 낸 것이다.

'코스트코 순천점 입점 반대 광양만권 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순천시와 광양경제청은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었다"며 "허가를 절대 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광양 경제청은 현재 건축 심의위원회 배후도시로 개발중인 순천 신대지구 입점을 위해 410여원을 들여 2만 7388㎡의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푼이라도... 국세청 세수확보 비상

올 상반기 세금 작년 동기보다 9조원나 줄어...숨은 세원 찾기 총력전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같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이나 적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국세청도 비상이 걸렸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안민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기간 국세청 소관 세수는 82조 12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883억원이나 적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올 한해 세수는 작년에 비해 20조원이나 줄어들 수 있다. 단순 환산하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192조원이었던 만큼 올해 걷을 세금이 172조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추가 세원 발굴 및 징수를 제고를 통해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실

정도 함께 나빠지는 상황여서 세수 확보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세청은 우선 법인세와 개인사업자 등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이달 25일이 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검증, 추적 조사 의지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를 통해 기업들의 올해 8월 법인세 예산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발족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보강해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숨긴 재산 파악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다만 국세청의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기업 활동의 영향을 받는 만큼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국면은 세수 확대의 근본적인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55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3	14	17	32	41	4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6,813,893,625			2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5,397,510			41	
3	5개 숫자 일치	1,530,525			1,484	
4	4개 숫자 일치	50,000			74,436	
5	3개 숫자 일치	5,000			1,234,01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300

알로에겔 *Green aloe gold*

“

국내 최고 함량으로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천연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력증진, 장건강, 피부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린알로에'의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가 없는 '3無 제품'으로 우수한 품질력과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켜 '201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린 알로에
FOR YOUR HEALTH